

우리말과 글 사용의 바르고 큰길

한글날 맞아 선보인 국어생활의 실용적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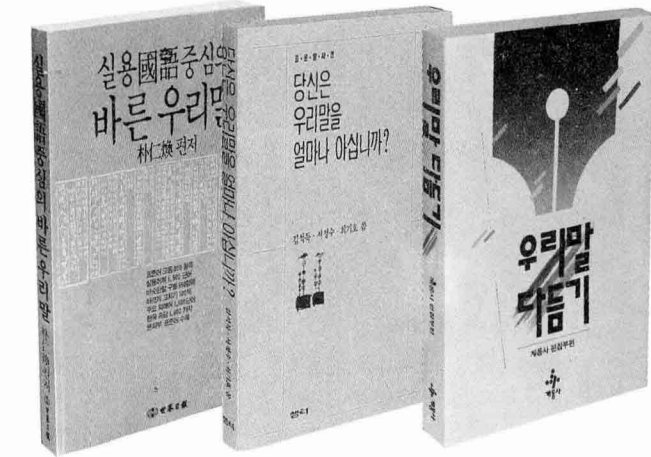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지 545번째 맞은 올 한글날을 전후해 우리말과 글을 다룬 책들이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국어어휘사전 구」(이기문, 동아출판사) 「언어학연구사」(김방한, 서울대출판부) 「국어학의 전개양상」(박영환, 한남대출판부) 「국어종결어미연구」(한길, 강원대출판부) 등 본격연구서들과, 「실용국어 중심의 바른 우리말」(박인환, 세계일보) 「우리말 다듬기」(편집부, 계몽사) 「당신은 우리말을 얼마나 아십니까」(김석득 외, 쌤터) 등이 그것들. 이 중에서도 특히 뒤의 세 책은 올 바른 국어생활을 위한 실용적 지침서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출판 및 잡지편집자들을 포함해 관심있는 일반독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실용國語 중심의 바른 우리말」

현재 세계일보 교열부 차장으로 재직중인 저자가 10여년의 신문제작 일선경험에 근거해 일반인을 위한 국어 어법 및 표준어 교재로 엮은 책으로서, 어떤 말이 표준어이고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른 표기인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89년 3월부터 시행된 새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바른 말 구사를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어휘, 비슷한 말, 표기, 외래어, 한자,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속담 등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관련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사전식 배열을 택해 찾아보기에 쉽도록 했으며 일부 항목에는 연습문제를 실어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

새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따라 “바뀐 교과서를 접할 기회가 없는 대학생이나 일반인



들”을 위한 교재로 엮었다는 것이 저자의 말.

「우리말 다듬기」

「실용국어 중심의 바른 우리말」이 일반인을 염두에 둔 ‘표준’ 교과서적 성격이 짙은 데 비해, 출판사 및 잡지 종사자들이 편집실무에서 부딪치는 문제의 실제적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현장에서의 쓰임새’가 높은 점이 특징. “한 출판사의 편집자로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의 어법이 저마다 다른 각종 교과서와 사전류 앞에서 찢절매는 고통을 스스로 덜고 또 동료의 것까지 덜어 주자는 데 목적”을 두고 엮었다는 것이 이 책의 편찬을 주도한 김택춘 씨의 말이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눈 가운데, ‘맞춤법해설’ 편에는 새 한글맞춤법 중 틀리기 쉬운 것들

을 골라 엮었고, 한글맞춤법의 부록을 따로 뉘 ‘문장부호 달기’ 편에는 가로쓰기를 주로 하는 편집자들을 위해 다양한 용례들을 덧붙였다.

이 책의 중심부분이라 할 수 있는 ‘글치레 연습’ 편은 외국어, 특히 영어와 일본어가 우리말의 낱낱 단어뿐 아니라 문장의 열개까지 침투해 들어와 고유의 어법을 뒤트리게 만든 사례들을 자료중심으로 엮어 이른바 ‘리라이팅’의 모범적 실례를 볼 수 있게 했으며, ‘띄어쓰기 용례’ 편에는 접두어를 가나다순으로 뽑은 다음 거기에서 파생하는 말이나 이어지는 말을 붙여쓰는 것과 띄어쓰는 것으로 구분해 실었다.

책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대로, 우리말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드러내고 그 더러운 때를 벗기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 만하다.

「당신은 우리말을 얼마나 아십니까?」

월간 「쌤터」지에 1971년부터 고정란으로 게재됐던 ‘우리말 익히기’ 20년치를 한데 모은, 문답식으로 엮은 토박이말 사전.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진하게 배인 토박이말이면서도 한자말을 비롯한 외래어에 밀려 이제는 오히려 ‘낯설게’ 돼버린 어휘들을 가려뽑아 표제어로 올리고, 그에 따른 몇개의 서로 다른 풀이와 올바른 해답을 제시하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수록어휘로는 표준말이나 시골말뿐 아니라, 고어사전, 고전문학, 근·현대문학의 명작을 통틀어 우리말 순화에 이바지할 만한 토박이말을 가려뽑았으며, 낱말의 뜻풀이와 함께 어원, 출처나 근거 대기, 그리고 용례 등까지 ‘해답’에 밝히고 있다.

우수리(거스름돈), 동티나다(잘못 건드려 스스로 재앙을 사다), 드팁전(웃감가게), 목정밭(오래 버려두어 거칠어진 밭), 해웃돈(화대) 등 잊혀져가는 우리말을 알뜰하게 거둬들여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 책으로, 권말에는 따라가나다순으로 정리한 표제어목록을 수록했다.

김석득(연세대), 서정수(한양대), 최기호(상명여대) 교수 등 세 국어학자가 공동으로 편찬했다.

여름새벽이 또 이사를 했습니다

사무실 구하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여름새벽만이 겪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수 많은 출판사, 아니 대한민국 백성의 거의 절반이 해마다 치르는 일이겠지요. 혹시 디자인이나 편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름새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여름새벽은 이미 3년 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표지디자인·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 및 잡지·사보·단행본의 편집대행에서 상당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같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새벽은 실무자들로 이루어진 출판디자인 전문집단입니다.



전화번호는 325-4963·4 팩시밀리는 325-4965입니다.

出版企劃

〈번역·집필〉

《全分野·全種別》

- 영·독·불·일·러시아어 번역
- 한·중 출판정보학회
- 한·중 번역저술학회
- 현대중국학술정보센터

代表: 黃秉國

(前) 숙대교수·출판사 기획실장·중국학 전공)

서울 양천구 목동 Apt. 10단지 31동 앞
전화: 645-7052

日 | 本 | 書 | 籍

● 앞으로 일본에서 간행될 책들의 정보와 서평을 모은 《BOOKPOST》를 매월 2회 만들어 회원 출판사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일본에서 발행된 서적·학술잡지를 항공편으로 신속하게 들여오고 있습니다.

북·포·스·트

서울 용산구 서계동 251-10
TEL 719-2330 FAX 712-1820